#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인물인터뷰**
김진선대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

**기획특집 | 신년인사 · 성시화**
2022년! 복음의 열정, 성령님의 역사.변화
아름다운 연합을 기대하며
'전 교회'가 함께하는 성시화운동

**기획연재**
춘천기독교 120년사

**문화에 빠지다**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
**명화감상** 목동들의 경배
**책속의책** 성도를 위한 365 통독 주석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 덕과 성품
**예수의 미소 시즌②** | 매운 짜장면! 춘천대화관



244
Winter 2021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1:23)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이단 세미나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 이단 대응 세미나

**교재**

신천지 대응 종합 매뉴얼

**일시/장소**

일시 : 12월 17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춘천우리교회

강사 : 신현천 목사(춘천 기독교이단 상담연구소)
문의 : 010-5423-9182, 010-5370-6047

주최: 춘천기독교이단상담소 | 후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METAVERSE SEMINAR

위드코로나시대의 목회

# 메타버스 플랫폼

12.9.(목) / 오전10시
~ 12시 30분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김태훈 목사
(한주교회, 총회교회자립개발원
교육팀장, 커뮤니온 대표강사 )

강의내용

▶ 이론, 실제사례

▶ 실습
1) 메타버스 이프랜드
2) 프레지비디오(3분 영상 제작방법)
3) 구글 사이트를 통한 맞춤 형 컨텐츠 제작

문의 : 010-9698-299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인물인터뷰 | 성시화운동연구소

**05**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 | 김진선 대표

기획특집 | 신년인사

**07** 2022년! 복음의 열정, 성령님의 역사, 변화 | 이수형 목사

**09** 아름다운 연합을 기대하며 | 지태성 목사

기획특집 | 성시화

**10** '전 교회'가 함께하는 성시화운동 | 최영조 목사

기획연재

**14** 춘천기독교 120년사 | 김동정 교수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7** 맛 기행(예수의 미소 시즌②) | 이관형 권사
매운 짜장면! 춘천대화관

**18** 영화(끝에서 시작되다)Same Kind of Different as Me | 김춘배 화백

**20** 명화감상 | 목동들의 경배

**21** 책 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후/원/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 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겨울이 찾아오는 소리

## 성시화

인물인터뷰

#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

**김진선** 대표(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춘천 중앙로에 있는 「윤희순의사기념사업회」(강원도 보훈회관 1층)에서 김진선 대표(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광장교회 권사)를 만났다.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이력을 가진 김 대표는 일찍이 교육인으로, 사회활동가로, 정치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더욱이 다음 세대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김 대표의 열정적인 이야기들을 짧은 지면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자.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라온 배경과 신앙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강원도 묵호(지금의 동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고, 곧이어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말미에 선친께서 강원일보 대표로 부임하시면서 춘천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천에서 춘천교대부속초등학교, 춘천중,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경희대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원주, 서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도 활동하였고, 선거대책본부장, 오랜 시간 동안 한국강남JC (한국청년회의소), 춘천중앙로타리클럽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성결교회와 인연이 적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소양성결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가족과 지인들이 주로 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랜 객지생활을 정리하고, 2000년대 중반에 춘천에 귀향하여 은혜롭고 성령충만한 광장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사역과 윤희순 의사 기념사업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애국운동,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뜻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를 설립하고, 교육 사업을 펼쳐온 지 올해로 3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린교육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복장, 귀가시간 등 건전한 기본 윤리교육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 교육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육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금까지 일절 받지 않고 사역해 왔습니다.

「윤희순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김진선, 상임이사/이건숙 외) 역시 애국운동과 다음 세대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윤희순 의사는 16세에 결혼과 동시에 서울에서 춘천(남면 발산리 황골마을)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유학자요 독립운동가 집안인 시아버지 유홍석, 유인석 장군을 도와 "여성의병부대"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안사람 의병가"를 작사하였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 요녕성으로 건너가 무장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민족지도자 육성학교인 「동창학교」의 분교인 "노학당"(老學堂)의 교장으로 취임하는 등 죽는 날까지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윤희순 기념사업회 임원진

윤희순 의사는 아쉽게도 유관순 열사만큼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병장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윤희순 의사의 애국적 삶과 정신을 널리 계승할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회교육에 대해서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문제, 자유학기제, 교과서개편 등 보다 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합리적 여론 파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보다 성숙하고 체계적인 교회교육,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과 하나님 앞에 보다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김진선 대표, 윤희순기념사업회, 033-255-9133)**

취재/최상도 목사(사암교회, 성시신문)

# 2022년! "복음의 열정, 성령님의 역사, 변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춘천성시화운동은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당시 인구 10만 명의 춘천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민족복음화 운동과 세계선교를 돕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은 삼전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총체총력" 전 복음 운동입니다. 전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통치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두 번째 전 복음은 전 시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부분들에 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 복음은 전 교회가 전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한 척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어선들이 모여서 고기들을 모아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력 어업입니다.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비대면 예배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가나안 교회'(성경의 나오는 지명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라는 문자의 의미)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당겨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AI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때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며 지금이

부흥의 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바라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힌 것도 많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평신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단체 등 모두가 연합을 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기틀이 세워졌다고 생각 합니다.

「사도행전 8:4-8」을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의 중심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며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교회가 움추릴 때가 아니고 오히려 기지개를 펼 기회임을 선포하며, 중심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교회는 더 흘려보내야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사역이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 50주년을 맞이하며 성시화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더 좋은 계획들이 세워져서 희년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춘천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들이 복음으로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 아름다운 연합을 기대하며!

**지태성**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복음을 심장에 품으시고 주님과 교회, 춘천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새롭게 춘천기독교연합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춘천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회를 더욱 잘 섬기고자 하오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춘천기독교연합회를 아름답게 섬기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새해 2022년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춘천의 복음화, 춘천의 성시화를 위하여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하나 됨, 연합의 사역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시어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모든 기관, 단체들이 서로 배려와 격려, 긴밀한 협력 가운데 ONE TEAM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속에서 춘천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춘천기독교연합회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 '전 교회' 가 함께하는 성시화 운동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 1. 현재 성시화 운동의 상황

1972년 7월 31일부터 한 주간 열린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는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 전 복음을 전하자'는 기치 아래 성시화의 불씨가 되었다. 이제 50주년을 앞둔 춘천성시화운동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 그 동안 교회와 도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우리만큼 변하였다. 성시화 운동 초기의 도시 규모는 10만 정도였는데, 현재는 30만에 육박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도 450여 교회로 늘어났다.

19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연합전도대회나 선교대회 형식의 대형 집회에 춘천에 속한 많은 교회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러한 형태의 연합집회는 계속되었지만, 그 참여율은 점점 떨어져서 30여 교회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수나 교회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필요가 다양해졌다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성시화 행사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본 소고는 성시화의 모토인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라는 말에서 현재 '전 교회'가 참여하는 성시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하면 '전 교회'가 참여하는 성시화 운동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춘천에 있는 신도들(목회자와 평신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설문의 핵심은 춘천의 신도들이 갖고 있는 성시화의 개념은 어떤 것이고,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여, 앞으로 성시화 운동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설문 내용과 통계

설문조사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질문해서 회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계 수치가 주는 힘 때문에 어떤 일을 기획하기 전에 고려하는 방법의 하나다. 설문 조사는 구성원을 조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해석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설문 조사는 구성분포와 그들의 다양한 가치, 믿음, 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1) 설문조사기간 / 21. 11. 13-19(7일간)
2) 설문대상 / 춘천시 내의 목회자와 평신도
3) 설문응답자 수 / 122명
4) 설문 질문항목 / 6개
5) 설문조사 방법 / SNS를 통한 조사

6) 설문내용

①귀하의 연령대와 교회의 직분을 체크해 주십시오(복수체크).
70-80대 / 50-60대 / 30-40대 / 20대 / 목회자 / 평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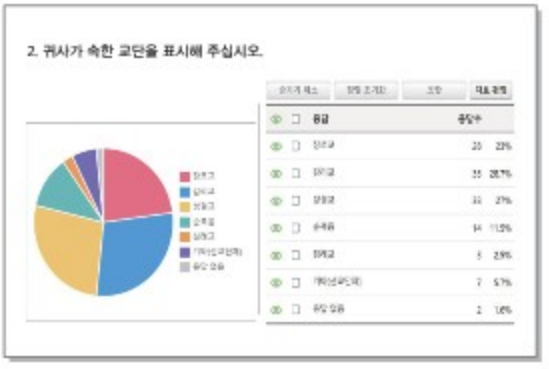
②귀하가 속한 교단을 표시해 주십시오.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순복음 / 침례교 / 기타(독립, 선교단체)

③춘천성시화운동을 알게 된 통로는 무엇인가요? (2개 이상 가능)
성시화 신문 / 목회자 설교 / 성시화 집회 / 신문, 방송, SNS 매체 / 서적, 친구소개 / 기타 / 들어본 적 없다

④(대교회사역) 귀하는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교회 사역을 돕는다면 다음 중 어느 사역을 돕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이전도및훈련 / 연합영성집회 / 전도훈련 및 실습 / 성서대학 / 신앙상담 / 이단 대책 / 청년연합운동 / 해외선교훈련 / 기타(그밖에 다른 사업이 있다면 아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⑤(대사회사역) 다음 중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지역 사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을 골라 주십시오. (2개 이상 가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및 지원활동 / 성시화 관련사업 (상징물, 성시화 제빵, 제과, 카페운영 등)활동 / 적극적 시정관여 활동 (예, 구 미군부대부지활용방안 제시) / 소극 적 시정관여(예, 춘천시청감사) / 성시화 신문, 서적발간 등 / 성시화 마을 등 공동체 운영 / 성시화를 위한 연구 활동 / 임법반대운동(예, 동성애 반대 등) / 기타

⑥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매월 성시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편집 방향,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분석

먼저, 성시화 운동에 대해 알게 된 통로를 묻는 질문에는 성시신문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성시화 집회, 미디어, 친구소개, 목회자 설교로 이어졌다. 이번 조사 방식이 성시화운동 본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SNS를 통해서 설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응답자 중에서 성시화 운동본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성시화 운동본부의 대교회 사역으로 돕기 원하는 사역은 연합성회, 청소년연합활동, 이단대책, 전도훈련과 실습, 어린이전도훈련 순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정해진 질문 외에 직접 원하는 사역을 기록한 내용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시화 운동에 관심 어린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교회 공간 사회 공유 운동, 미디어 선교, 평신도 교육, 전도 구제 봉사 등 공동사역, 성시문화행사개최, 성경통독 프로그램 활성화, 성령집회, 교회 간 소통창구, 작은 교회 청년사역활성화, 어린이 집회, 연합 전도, 교회이미지미디어홍보, 인구절벽에 대비한 교회 역할, 경배와 찬양집회, 좋은 세미나, 경제적 후원, 다음세대 양육, 교회분쟁조정, 탈북민 사역, 교회와 지역을 연계하는 중계역할, 기도회개최, 젊은이들의 참여유도, 전문인성시화요원네트워크, 전시회, 공연, 문화콘텐츠개발 제공, 노인상담, 50주년 성시화선교대회개최, 목회자자녀 지원사업, 가나안성도 돌봄, 영상콘텐츠개발, 기독교 직장인 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이 있었다.

끝으로, 성시화운동본부가 대사회 사역으로 필요한 사역을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과반 이상의 의견을 주었다. 그 뒤를 이어 반성경적인 입법에 대한 반대운동, 성시화를 위한 연구 활동, 성시관련 사업 활동, 성시마을과 공동체 운영, 성시신문 및 서적발간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특히 설문의 문항 외에 개인 의견 중에도 눈에 띄는 안건이 있었다.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사역, 가정세우기, 나눔 네트워크, 사회정화운동, 사회복지, 기후 및 환경 분야 대안모색, 연탄 및 반찬 나눔 등에 대해 의견이 있었다.

## 4. 결론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생각하게 된 개인적인 소견 몇 가지를 나누며 본 소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성시화 운동은 전 교회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0, 80년대 성시화 운동은 대다수의 교회가 동참하는 편이었으나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교회의 참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는 행사를 준비하는 요원들 중심으로 참여도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교회의 수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개교회의 필요가 다양화 되었다는 점에서는 필요에 충족되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형편이었다.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연합회의 리더십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도시의 전체 교회에서 리더로 추대되는 분이 리더가 되기보다는 교단별 순서에 의해 봉사하게 되다 보니 리더십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임원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영역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 성시화 운동의 초창기(1972-1990)에는 주로 성시화 운동이 평신도 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되고 제도화되면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흐름이 변화해 왔다. 이런 추세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초교파적인 전 교회의 운동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성상 목회자들은 신학적, 교단별, 연령대별 구분이 더 확실한데 비해 평신도 세계는 이런 구분이 선명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시화 운동의 영역별로 비전을 공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며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와 메타버스 등 미디어 부문에 다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 「춘천기독교 120년사」 집필에 즈음하여

**김동정**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신성감리교회)

1898년(춘천중앙감리교회 창립) 춘천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현재 2019년이 1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120여 년 동안의 춘천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 온 발자취가 현대를 살아가는 춘천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거울과 신앙적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을 기획하게 되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준비는 2016년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9년 3월 2일과 3월 31일 가목차가 정해져서 12월 완간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상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9일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오의석) 주관으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가진 신년교례회에서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후 1월 31일과 2월 5일에 순복음조은교회(담임 오의석)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오의석 목사), 수석부회장(손광오 목사), 총무(김수일 목사), 서기(최재훈 목사) 등의 임원을 비롯하여 김기태 원로장로(중앙감리), 김영명 원로장로(춘천순복음), 황병호 원로장로(제일장로), 석광훈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석사감리), 춘천성시화운동 사무총장 김훈 목사를 비롯한 김동정 · 심재연 · 노성호 · 임대형 등 평신도 교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차와 집필방향 및 집필자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집필에 들어갔다.

오의석 목사 사회로 진행된 『춘천기독교 120년사』에 관한 편찬회의 모습(2020.1.31.)

「춘천기독교 120년사」는 2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5월까지 집필을 마치고 수정, 보완 및 필자교정과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출간될 예정(46배판 단행본 750쪽 분량)이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20일부터 국내에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집회와 개인적인 만남까지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결국 집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20년을 넘기게 되었다. 2021년에 들어와 코로나19에 대한 적응으로 인하여 다시 추진하게 되었으며 9월 1일에 춘천성시화운동부는 춘천시 문화컨텐츠과에 예산신청을 했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11월 5일과 11월 19일 춘천순복음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이수형 목사) 주재하에 박인관 목사, 이병철

목사, 최상도 목사, 김훈 목사, 김동정 교수, 노성호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찬위원회 및 집필위원회 구성 문제, 집필 및 발간일정 조율, 가목차 심의를 거쳐 이제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대로 시행되면 내년 8월말에 46배판 단행본 750쪽 분량 상하 두 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춘천기독교 120년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8편 54장으로 구성하였다.

1편(4장)에서는 기독교의 한국, 강원도 전래와 발전
2편(6장) 춘천지역의 복음전파와 성장
3편(9장) 춘천 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4편(7장)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5편(9장)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와 활동
6편(11장) 춘천의 사회단체와 활동
7편(4장) 춘천의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종교사업
8편(4장) 춘천 기독교를 빛낸 인물 등으로 진행되며, 부록1에는 춘천기독교 연지(年誌), 부록2에는 춘천지역 교회 역대 목회자 및 장로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위의 내용은 집필과정과 수정보완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가감될 수 있다.

이 책이 편찬되면 춘천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복음적 사명을 감당한 신앙 선인들의 삶을 조명하여 알리고 계승하며, 믿음의 선배 발자취를 통해 신앙열정을 회복하고 올바른 신앙을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 목사 주재로 편찬회의 하는 모습(2021.11.5)

영
화
책
문화에
빠지다 冬
Food.. Movie.. Book..

# 매운 짜장면! 춘천 대화관

**이관형** 권사 (춘천 한길교회)

"양마니70, 양마니100, 보통50, 양마니100에 밥"

입장을 하면 손님과 사장님이 뜬금없이 외계어로 서로 소통하는 이곳은 춘천 명동닭갈비 골목에 닭갈비집도 아닌데 올해 23년째 골목 건물 2층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중국집 대화관이다. 계단을 들어설 때부터 마스크를 했음에도 매운맛이 코끝을 누르는 듯한 이곳 중국음식점의 분위기는 80년대 레트로풍으로 흰색 그릇에 담겨 나오는 짜장면은 여느 음식점처럼 예쁜 완두콩이나 삶은 계란과 양파, 돼지고기 등의 재료가 들어있지 않아 플레이팅 점수는 0점이다. 더군다나 중국집답게 요란하고 호화찬란한 메뉴도 없이 메뉴는 달랑 짜장면과 탕수육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점심시간의 손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다.

매운 짜장면!

오래전부터 과음으로 인한 숙취도 이곳 음식점에서 해결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처음엔 도원이나 교동처럼 짬뽕이라 생각했는데 짬뽕이 아닌 매운 짜장면이라 해서 다소 의아해했다. 나는 이런 매운 짜장면을 처음 만난 순간, 다크 브라운의 짙은 색감을 띤 짜장 소스가 내 혈액으로 파고 들어가 퍼져서 온몸에 훈훈함을 더해주었다.

매운 짜장면의 매운맛으로 인해 전쟁터로 변한 내 위장 속은 이미 매운맛에 더 이상 먹지 말라고 백기를 흔들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운맛은 군만두란 사병들을 앞세우고 인해전술로 밀려든다. 한마디로 산뜻하니 깔끔하게 매운 짜장면은 파괴력이 있어서 중독된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면 매운맛을 잠시 잊게 해주기 위해 나오는 사이드 메뉴는 각 음식점마다 다르지만 아마도 미역국, 누룽지탕, 주먹밥, 계란찜 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 매운 짜장면의 매운맛은 군만두가 해결한다니 과연 그럴까?

더 재미난 것은 매운 짜장면을 주문하면 군만두는 무한 서비스다. 사실 군만두보다는 김장철 무채 썰듯이 잘게 썬 양배추를 마요네즈로 버무린 것, 아니면 매운 닭발집처럼 모양새는 볼록하니 맛은 하늘하늘한 예쁜 계란찜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젓가락 위에서 촉촉하게 흔들리는 족발 같은 행복감은 없지만, 이 뻣뻣하게 튀긴 군만두가 입속에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군만두는 매운맛을 호되게 꾸짖는 엄마의 사랑 같다. 군만두 또한 서비스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맛있다. 요즘은 내가 매운 짜장면이 좋아서 이 집에 가는지 아니면 군만두를 먹기 위해서 이 집에 가는지 알쏭달쏭하다. 그동안 매운 닭발, 매운 갈비, 매운 짬뽕, 요즘은 마라탕 등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맛있는 게 괴로운 건 정말 오래간만이고 이 매운 음식 맛 때문에 전도사님도 실수로 욕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 죽다 살아날 정도로 매운 음식점은 이곳이 처음인 것 같다. 세상 처음 맛보는 매운 음식 때문에 불신자들도 입을 쫙 벌린채 눈 감고 '주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음식, 매운 짜장면이다.

tip 이곳 음식점을 처음 방문할 경우 매운 정도는 50%로 시작하자.
괜히 쓸데없는 호기 부려 100% 주문하면 만두만 먹게 된다.

# 끝에서 시작되다 Same Kind of Different as Me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르네 젤위거는 시쳇말로 로코, 즉 로맨틱 코미디에 전문적으로 출연하는 매우 유쾌한 인상의 배우이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코믹한 역을 주로 맡았는데 그런 배우로서는 쉽지 않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작년(2020년)에 수상하였다. 물론 수상작 〈주디〉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아니다. 영화 이야기에 앞서 이를 언급한 이유는 본 영화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 작품인지 말하고 싶어서이다. 연기력이 좋은 배우, 훌륭한 연출의 감독, 좋은 영화는 먼저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영화 중 감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했던 작품들은 대개 이렇게 좋은 감독과 배우들이 만든 영화인 것이다. 주님은 그들도 사용하셔서 말씀과 믿음을 확신시키시고 감화시키신다.

이 영화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한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봉사라는 행위에 대해 그 심리와 내막을 들여다보는 독특한 앵글을 보여준다. 미술품 경매가로 출세의 길을 가는 남편 로널드는 외도하며 실족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사이도 안 좋다. 암을 앓는 중에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는 아내 데비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어느 날 한 남자의 꿈을 꾸게 되는데 뭔가 깊은 암시를 느끼며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봉사단체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그곳이 바로 〈유니언 복음 선교회〉라는 노숙자센터인데 그곳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분위기를 험하게 만드는 분노조절 장애자 덴버라는 흑인을 만나게 된다. 흑인으로서 차별받고 억울하게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덴버의 고달프고 힘겨웠던 인생을 알게 되면서 그를 위로하고 도움이 되고자 힘쓰는데 매번 폭력적 언행을 일삼으며 삐딱한 그를 보살피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서로 간의 벽을 뛰어넘는 우정으로 함께 고통 가운데 용기를 내게 되고 마침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로널드는 노숙자 덴버와 아내 데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고, 그와의 동행을 선택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용서와 사랑의 영화인 것이다.

로널드와 데비 두 사람은 화해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 데비는 죽게 되고 데비를 추모하는 덴버의 추모사가 굉장히 은혜롭다.

론 홀, 댄버 무어, 린 빈센트 등이 합작한 동명의 실화를 마이클 카니가 스크린으로 옮겼으며 앞서 말한 르네 젤위거와 함께 미국 비평가협회상 남우조연상의 그렉 키니어, 매우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의 아버지 존 보이트, 수많은 영화에서 중요한 배역으로 출연하는 흑인 배우 디몬 하운수 등 탄탄한 출연진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어느 관람객이 블로그에 올린 다음의 감상평으로도 이 영화의 진가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덴버의 말처럼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집을 잃은 자들이며 우리 모두 천국이라는 영원한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둔 영화여서 보면서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놀라우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출처] [기독교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작성자 Lantern)

# 김복동 목동들의 경배

Salvation 2013-3
237.7×115cm | oil on canvas & wood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마2:6)

'목동들의 경배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에서 조르쥬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는 촛불의 화가답게 그 광원만으로 빛을 표현하였는데, 깊고 진한 감동으로 숙연함을 갖게 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주한 관객은 기쁨과 환희의 장면을 기대하나, 그의 탄생을 경배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동과 박사들은 무겁고 진중한 표정으로 일관한다. 빛이 있는 곳과 경배하는 인물들의 시선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로 집중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기 예수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 하듯 온몸을 수의 같은 천으로 감싸고 깊이 잠든 모습이다. 인류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구원(Salvation)의 예수를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놀라운 표현의 비밀은 측면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미학에 있다. 테네브리즘(카이로스큐) 기법은 단순한 명암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정신(mind), 심리(psychology) 등의 다양한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촛불의 빛을 통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현대 여인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또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호소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 책 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 (안디옥교회)

어느새 찬바람으로 어깨를 움크리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2021년, 달력의 첫 장을 엔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장을 눈앞에 두고 한 해를 잘 마무리도 하면서 슬슬 새해 계획도 꿈꿔볼 때에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한다.

## [성도를 위한 365 통독 주석]

김태희 지음/세움북스

새해를 맞아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하고픈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이다. 교리교육을 사역의 중심에 두는 저자가 성경전체를 36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단한 주석 형태로 친절하게 해설하며 이끈다. 꾸준하게 정해진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고마운 책이다.

##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김기현 지음/성서유니온

말과 글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품고 있는 저자가 묵상의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세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묵상 실전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은 이들이 그 손을 붙잡고 가다보면 도전과 격려를 얻게 되는 책이다.

## [덕과 성품]

스탠리 하우어워스 지음/홍종락 옮김/IVP

친구 부부의 아들 대부가 되어 주기로 한 후 매해 세례 기념일에 보낸 편지로 그리스도인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미덕 14가지를 설명한다.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고민한다면 이 책을 읽고 곱씹어 보라. 결코 후회하지 않을 책이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개인

가천흥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곽복연 곽해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채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복 김종숙 김종옥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명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학 변영숙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원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면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온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엔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증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제영 오흥금 오흥수
용애중 용영욱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흥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 후원교회

감리교회 강변제일교회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임마누엘교회 옘마오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평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하늘평안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혈동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춘천광장교회 산솔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제자감리교회 하늘기쁨교회
성광교회 쉼이있는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효신교회 초대교회

##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헌
**편집 · 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여 신학생 편입생

## 목사 · 전도사 수시모집

###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 모집과정

| 과정 | 학제 | 지원자격 |
|---|---|---|
| 신학부 (8학기)<br>연구원 (4학기) | 주간반<br>야간반<br>토요반<br>통신과정 | ● 세례를 받은 자<br>●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br>●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br>●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br>● 신학부에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 특전

방학 없이 2년 8학기를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여목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본 과정은 서울 본원과 지역 캠퍼스와 동일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총회장 정서영 목사

**수시모집**

## 총회신학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한솔 만천로 15-6
☎ 033) 243-5354

교회창립 1934.7.3

2021 표어

#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눅 1:17)

## | 섬기는 이들 |

| | |
|---|---|
| 담 임 목 사 | 장기동 |
| 원 로 목 사 | 윤철중 유동선 |
| 부 목 사 | 박영춘 이봉현 김광신 |
| 협 동 목 사 | 송지광 |
| 전 도 사 | 조민주 |
| 교육전도사 | 최용민 박다림 |
| 시 무 장 로 | 이태진 고재룡 김성환 김주경 |
| | 류충수 김흥수 김창호 강원재 |
| | 이창호 엄정호 사재훈 남궁태호 |
| 원 로 장 로 | 차형열 남궁수명 엄창화 김치경 |
| | 박주병 남궁연 |
| 명 예 장 로 | 최선규 이태집 박한병 정지수 |
| | 김진삼 염창헌 서문웅 이정섭 |
| | 김영선 전정수 남성우 김기남 |
| | 김치중 박태순 김진환 엄재달 |
| | 김세근 김영일 김인수 한부현 |

## VISION

부름 세움 보냄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
www.cccehc.com
24357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14
TEL.033)256-3535 FAX.033)256-3543